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모든 계획이 실패하는 오늘날, 이 확신은 인간의 이기심과 공격성으로 인해 안전과 평화, 행복이 거의 완전히 사라진 세상에서 유일한 빛과 희망의 광선입니다. 이 희망의 빛은 성경에서 그 성공이 하나님을 믿는 소수의 선의와 미약한 노력에 달려 있지 않으며, 방해하려는 이들의 이기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시려는 결심과 능력에 달려 있음을 깨달을 때 미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상수훈에서 가르쳐진 그리스도의 교훈이 세상에 받아들여진다면 지속적인 평화와 행복을 이룰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 그러나 그들은 문제의 핵심은 세상이 이 교훈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인류 역사는 이기적인 인간이 갑자기 이타적이 되어 자기 일의 지배적 동기로 이기심 대신 사랑을 채택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희박함을 가르쳐 준다. 무력으로 국가들이 황금률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이 방식으로 인간의 야망과

탐욕이 초래한 현재의 혼란 속에서 평화와 행복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탄생할 것이라는 희망은 실로 허약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류의 미래 행복에 대한 진정한 희망을 찾으려면, 그 계획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적절한 장치를 포함해야 합니다. 그 성공은 이기적인 인간의 조작 가능성이나 믿지 않는 대중의 냉담한 무관심에 의해 위태롭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이 신성하게 마련된 방법과 수단을 통해 실행되며, 그 실행 가능성과 최종 성공을 보장하여 세상에 "만민의 소망"을 가져올 것이라고 확언한다. 학개 2:7; 스가랴 4:6

하나님의 목적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심

현재 세계 정세의 비극적 상황은 신성한 계획의 일시적 실패조차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 여겼던 것의 실패를 의미하며, 이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재검토하여 해석상의 오류를 발견할 필요성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 오류들은 희망과 기대를 낳았으나, 이제 차가운 현실에 의해 산산조각 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의 목적과 진전에 관해 품어 온 그 허위적이고 근거 없는 희망들이 이제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 모든 이에게 명백히 드러났다. 정통 교계에서 받아들여진 생각은 세상이 꾸준히 나아지고 있으며, 문명이 인간 간의 선의 수준을 점점 더 높여가며 진보하고 있으며, 곧 두려움과 가난과 전쟁이 사라질 것이라는 것이었다. 정통 교회주의의 이 낙관적인 전망에는 또한 모든 이방인들이 아마도 현 세대의 생애 안에 기독교로 개종할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러한 기독교 세계의 허황된 희망과 주장은 1914년 제1차 세계대전 발발과 함께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화 유지라는 인간적 노력의 붕괴 결과로부터 문명과 정의의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한 최후의 노력이 기울여졌다. 그 전쟁은 세계에 갑작스럽게 닥쳤으나, 철학적으로는 "전쟁을 끝내는 전쟁"이자 세계를 "민주주의를 위한 안전한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되었다.

1918년 휴전 이후 '정상화'로의 복귀에 대한 논의가 많았으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정상화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든 회의와 협상이 실패한 후 또 다른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시작되었고, 이제 세상은 정상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고 있다. 오늘날의 문제는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 것인가가 아니라, 새로운 '정상'의 본질이 무엇이 될 것인가이다.

한편, 이 모든 혼란의 세월 동안 지구상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은 수로 기독교 교회로 이끌려 들어오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 현상이 벌어졌다. 소위 문명화된 지역에서도 교회 신자 수의 증가는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무신론은 증가해 왔습니다. 세속적인 정신이 여전히 대부분의 교회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거의 모두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믿음 없이 학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있습니다. 선교 활동은 쇠퇴했고, 온갖 종류의 철학이 우리 아름다운 땅을 뒤덮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비판하거나 누군가가 더 잘했어야 했다는 의미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해온 일들에 대해 비판을 제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인간 노력의 어느 지점에서, 드러난

진실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남녀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오류를 범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에 세상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면, 세상은 회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1914년 이전 지상의 제도 위에 있었다면, 그것들은 파괴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지자를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입에서 나가는 내 말씀도 그러하니...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며 내가 보낸 바 목적을 이루리라." (이사야 55:8-11) 이는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든 간에 꾸준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서는 창세 이전부터 그의 모든 일을 아셨다"고 말합니다(사도행전 15:18).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를 위한 계획을 미리 아셨으며, 그 계획에 어떤 차질도 없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6:9,10; 14:24,27

하나님께 계획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3:11에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는 "세대를 위한 계획"을 언급하며, 그 계획의 핵심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 사역임을 밝힙니다. 이 계획이 여러 시대를 포괄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1:10에서 바울이 "때가 차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 말하고, 에베소서 2:7에서 "장차 올 세대에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시려 함이라"고 말한 데서 알 수 있습니다. 사도가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이루어질 일로 제시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다 하나 되게 하심"이다. 이는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에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 시대, 즉 시간의 기간들을 포괄하며, 오직 "때가 차매"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 계획이 결실을 맺을 것임을 알았으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아 이전 시대들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때가 차매"의 궁극적 목표를 향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확인해 보자.

세 가지 세계

베드로의 두 번째 서신 3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세계"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 예언에서 사도는

사물의 질서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코스모스(kosmos)"를 사용합니다. 그는 첫 번째 세계가 대홍수 때 끝났다고 말하며, 두 번째 세계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끝나고, 세 번째 세계, 즉 하나님의 세계는 "끝이 없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3:21). 이 세 세계는 세 개의 긴 시기를 포괄합니다. 베드로후서 3:6; 갈라디아서 1:4; 히브리서 2:5

현대 언어 사용에 맞춰 이 세 세계를 어제의 세계, 오늘의 세계, 내일의 세계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계'라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우리가 사는 행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질서 체계, 때로는 시대나 기간을 의미하는 세대()를 가리키는 데 사용합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오해하는 많은 경우, 바로 이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적 "세상의 끝"은 문자 그대로의 지구와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해되어 왔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이 주제를 탐구하는 것을 꺼려왔다.

세상의 끝이 의미하는 바에 대한 이러한 오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 도래를 두려워하며 따라서 그것을 먼 미래로 미루려 애써왔다. 또 다른 이들은 이를 중세 시대의 단순한 미신으로 여겨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현재 세상의 종말'이 바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며, 우리 시대의 사색하는 사람들이 '한 세상의 종말'이라 부르는 바로 그 것을 의미한다는 점을 깨달을 때, 이 주제는 내일의 세상이 어떠할지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중요하고, 아니, 생명을 건 의미로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은 '불', '지진', '폭풍' 등의 용어를 현대 언어에서와 마찬가지로 비유적으로 사용하여, 이 세대에 인간과 국가들에게 닥친 재앙적인 고통을 묘사한다. 주님께서 섬기는 자, 섬기는 척하는 자, 반대하는 자를 설명하기 위해 "밀"과 "가라지", "양"과 "염소"를 사용하신 것처럼, 그분은 "땅"과 "하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세계"라 불리는 조직화된 사회의 단계를 설명하신다.

예레미야 22:29

베드로는 홍수 이전의 하늘과 땅에 대해 말하며, 그것들이 "그때의 세상", 즉 어제의 세상을 이루었음을 나타냅니다. 그 세상은 홍수 때에 끝이 났지만, 땅 자체는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문자적인 땅에 대해 우리는 그것이 "영원히 남아 있다"고 읽습니다. (전도서 1:4). 이사야 45:18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시고 "사람이 살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해 신적 계획의 윤곽을 추적할 때 명심해야 할 근본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류를 다른 삶의 영역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래 설계된 고향인 땅 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다. 시편 115:16; 이사야 65:21; 예레미야 31:17; 신명기 11:21; 마태복음 5:5

창조 시기에 시작된 첫 번째 세상은 대홍수로 끝났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두 번째 세상은 대홍수 이후 시작되어 큰 환난 시기, 즉 여호와의 날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질 멸망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우리 주님의 재림 이후에 오며, 이때 현재의 악한 세상의 상황은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4:38,39; 누가복음 17:26,27;
창세기 6:11; 베드로후서 3:6,7,10

노아 시대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보내며... 다가올 홍수로 '그때의 세상'이 멸망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 "주님의 날"이 "밤중에 도둑처럼" 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그날의 파괴적인 재난이 이 "현재의 악한 세상"을 전복시킬 때까지 사건들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4; 데살로니가전서 5:2; 누가복음 21:35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종말은 인류의 종말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것은 단지 새로운 세상, 내일의 세상—하나님의 내일의 세상—의 시작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제의 세상과 오늘날 세상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이기심에 기반을 두어 왔으며,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그 통치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의 종말과 내일 세상의 시작과 함께 사탄은 결박될 것이며, 그 새 세상은 새롭고 신성한 통치 아래

놓일 것이다. 요한계시록 20:1-4; 21:1-5; 베드로후서 3:13; 이사야 65:17; 오바다 21

이기심 대 사랑

사탄의 통치 아래, 이기심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정신은 어제의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지배적이었습니다. 죄와 이기심은 그 첫 번째 세상을 계속 지배했으며, 그 결과 세상이 끝나기 직전에는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창세기 6:11).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현재 세상의 해체를 목격하고 있으며, 그 멸망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큰 환난의 폭력으로 인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니엘 12:1

하나님의 내일의 세상은 새로운 통치자, 곧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지도 아래 있을 것이다. (시편 72:1-20; 요한계시록 19:16). 그분의 통치는 이기심이 아닌 사랑의 기초 위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사도가 그 세상을 "의가 거하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베드로후서 3:13

죄와 이기심이라는 사탄의 잘못된 통치는 죽음을 가져왔으니,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로마서 6:23). 그러나 의와 사랑의 메시아 통치는 생명을 가져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모든 원수들이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할 때까지 다스려야 하며,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고린도전서 15:25,26).

이 세 가지 세계와 그 각기 다른 특성을 명심할 때, 성경이 그들에 대해 말하는 모든 것이 모순되어 보일 수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다양한 진술들을 각각 해당되는 시기에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지자는 현재의 시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교만한 자들을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일의 세계에 대해서는 "의인은 번성할 것이요" "모든 악인은 그가(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15; 시편 72:7; 사도행전 3:23; 시편 145:20

성경의 섭리 시대를 연구하는 이러한 방법은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도록" 부지런히 노력하라고 가르칠 때 언급한 것과 일치하는 듯하다(디모데후서 2:15). 성경 연구에서 그 예언과 약속들을 각각 속한 시대나 세상에 적용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그 가르침 속에 존재하는 단순함과 조화,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성경 자체는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남은 것은 그와 내적 조화(harmony)를 이루는 것이다. 요한복음 7:17; 누가복음 11:9,10; 예레미야 29:13

사도 베드로가 언급한 처음 두 "세상"(베드로후서 3:6,7)은 "이 세상의 임금"(요한복음 14:30)인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으며, 인간의 일에 대한 완전한 신적 통치는 하나님의 내일의 세상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이 그동안 인류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시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계획의 준비 단계를 꾸준히 진행해 오셨으며, 이로써 통치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때가 차면" 자신의 정하신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을

축복하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2:3; 에베소서 1:10

사탄이 수많은 사람들을 지배해 온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점진적인 시기, 즉 시대를 거쳐 발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그의 백성에게 주신 약속과 지시—는 이 모든 다양한 시대 동안 지상에서 그의 일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그는 은혜의 각 시대마다 특별한 사역을 계획하셨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첫 번째 세상, 즉 어제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대하시는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 시절 중요한 약속들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15에서는 여자의 "씨"가 언젠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에녹을 통해 하나님은 주님께서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유다서 14). 노아와의 관계에서는 오늘날 우리가 현재 세상의 종말과 관련해 큰 가치를 지닌 몇 가지 예시들이 제공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보는 신적

계획의 관점에서 보면 홍수 이전에 일어난 일들도 매우 의미심장하지만 말입니다.

족장 시대

대홍수 이후의 첫 번째 시기는 족장 시대라 불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표현이 직접 등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이 죽고 그의 열두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질 때까지 족장들, 즉 이스라엘의 조상들로 알려진 소수의 개인들과만 독점적으로 사역하셨음을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족장 시대 동안 하나님의 사역이나 계획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온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시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관심을 드러내지만, 그 시대에 일반 백성들은 약속된 축복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습니다. 이사야 51:2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만을 부르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1

족장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이 그들의 악함으로 인해 멸망당했으나, 하나님은 이 악한 자들의 회개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당대 특정 도시들에서 강력한 기적 사역()을 행하신 주님은, 동일한 능력의 기적들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해졌다면 그 도시들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악한 도시 사람들에게 효과적인 증거를 주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계획이었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그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과 그분의 놀라운 일을 인정하지 않은 그 선택받은 도시들보다 그들에게 "더 참을 수 있는" 시간을 약속하셨습니다.

반대로 우리는 이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온" 땅의 가족들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포함되었다고 결론내려야 한다. 따라서 이 상황을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관점은 하나님께서 소돔 사람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축복하실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예언자 에스겔이 그의 예언 16장에서 44절부터 장 끝까지 정확히 예언한 바와 같습니다.

약속된 씨

조상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후에 신성한 맹세로 확증되었습니다(창세기 22:16-18; 히브리서 6:13-18). 이 놀라운 약속에서 하나님은 땅의 모든 가족을 축복하시려는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이 죽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핵심이 된 열두 아들들에게 재확인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완전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축복의 씨가 영적인 씨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와 맺으신 언약이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분명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한 부분은 '씨'의 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다른 부분은 그 씨를 통해 약속된 복을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심할 여지없이 기적의 아이 이삭이 약속된 씨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능력을 그토록 믿었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친다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17-19

히브리서 11:13, 39와 사도행전 7:5에서 사도는 아브라함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세우신 기초가 있는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1:10). 아브라함에게 도시는 정부나 왕국의 중심지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하나님께 기대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왕국을 하나님께서 땅 위에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실로 구약성경에 기록된 장차 올 메시아 왕국에 관한 약속 중 하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다른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메시아 왕국의 지상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과 그들이 그 약속에 대한 순종적인 믿음은 그들이 그 역할을 준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 외에도,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들과의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

후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더 명확히 드러내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구성한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조상 시대에 세상을 개종시키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계획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일을 행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그랬듯이 위대한 성공이었다.

유대 시대

하나님 계획의 다음 단계인 유대 시대는 야곱의 죽음으로 시작되어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으로 끝났다. 이 시기를 '유대 시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국을 최종적으로 세우고 그로 인해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준비 작업을 어떻게 계속하셨는지를 암시하기 때문이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유대 민족이라는 한 민족과만 사역하셨다. 선지자를 통해 그들에게 선언하셨다.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오직 너희만 내가 알았노라."
아모스 3:2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제사장 직분을 통해 성막 예배를 제정하셨는데, 신약성경에 따르면 이는 "장차

을 좋은 것들"을 예표하였다. (히브리서 9:11,23; 10:1).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게 주신 약속은 그들이 그분께 충성하면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었다. (출애굽기 19:5,6). 이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땅의 모든 가족에게 베푸실 것임을 의미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신적 계획 속 이 높고 영광스러운 지위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로마서 11:7). 그들의 오실 메시아()가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그를 거부했고 그 결과 신적 은총의 이 특별한 지위에서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나 유대 시대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유대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사"(schoolmaster)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갈라디아서 3:24).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해 생명을 얻지 못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필요함을 증명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결국 동일한 위대한 교훈, 즉 구속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유대 시대 동안 다른 중요한 일들도 이루셨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관계와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에게 귀중한 본보기와 지침이 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수백 가지 약속들은 신적 계획의 중요한 특징들을 개괄적으로 보여주며, 따라서 메시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다른 방식으로도 유대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 회복을 위한 신적 계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유대 시대 동안 하나님의 역사는 실패가 아니라 신적으로 의도된 목적을 성취했습니다.

유대 시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으로 끝이 났다. 그분의 사역 기간과 그 후 3년 반 동안, 신성한 은총은 유대인들에게 계속되었다. 이 계획에 따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과 제자들의 사역을 부활하신 후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국한하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어떤 성에도 들어가지 말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10:5,6

복음 시대

예수님의 부활 후, 그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사역을 확장하라고 지시하셨으나, 그때조차도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야 했다. (누가복음 24:45-49; 마태복음 28:19,20). 다니엘이 예언한 바에 따르면(다니엘 9:24-27), 메시아가 "일주일"의 중간에 "제거"될 것이라고 말하며, 예수님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에게 3년 반 동안 은혜가 주어질 것이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예언적 시간에서 "일주일"은 하루를 일 년으로 계산하여 7년을 의미한다. 민수기 14:33,34; 에스겔 4:6; 다니엘 12:11,12; 요한계시록 11:2,3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복음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그리스도의 재림, 즉 하나님의 내일의 세계가 시작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복음 시대"라는 용어는 그리스도의 첫 번째 강림과 두 번째 강림 사이의 이 시기를 지칭하기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왕국에 관한 복음, 즉 "좋은 소식"의 선포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서 언급했듯이, 조상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 조상들을 선택하여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 유대인 시대에는 유대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셨고; 그러나 복음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조상 시대처럼 특정 탁월한 개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지도, 유대 시대처럼 단일 민족에게만 은혜를 베푸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백성인 모든 이들에게 모든 민족 가운데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도록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응답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대적 계획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심으로써 은혜를 베푸신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 시대 동안 하나님의 사역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도행전 15:13-18에 나와 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찾아가신 것은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을 취하기 위함"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유대 민족 전체가 이 백성이 될 예정이었고, 그들 중 일부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며,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을 주셨다"(요한복음 1:12). 그러나 신성한 계획 안에서 이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은 14만 4천 명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습니다. 어떤 관점에서는 상당한 숫자이지만, 인류 전체나 심지어 자칭 기독교인들과 비교하면, 이는 참으로 "작은 무리"에 불과합니다.
누가복음 12:32

로마서 11:17-24에서 사도는 이방인들이 이 복음 시대의 특별한 특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유대인들이 "본래의 가지들"로서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 꺾여 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방인 중에서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이 선택될 때, 그들이 원래 이스라엘 계획에서 유대인 버림받은 자들의 자리를 실제로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즉, 육신적인 이스라엘 집은 이 특별한 은혜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 7:4-8과 14:1-3에서 14만 4천 명의 전체 무리가 이스라엘의 그림으로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시온 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이 "작은 무리"의 이마에 어린 양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언급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그들은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 즉 그의 이름을 지니는 자들로 드러난다. 요한계시록 19:7에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모습으로 묘사되며, 이 방식으로도 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가문 이름을 공유하게 됩니다(요한계시록 21:2, 22:17 참조).

하나님의 통치하는 집

하나님 말씀의 일반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복음을 통해 모든 민족 가운데서 모인 이 "그의 이름을 위한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집입니다. 미가 4:1-4에서는 온 땅에 걸쳐 신성한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말해지며, 이 왕국(예언에서 "산"으로 상징됨)은 "주님의 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현재 이 악한 세상의 모든 세습 통치 가문들은 대대로 통치자들이 통치할 "권리"를 상속받는 가족적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왕국도 통치 가문의 손에 맡겨질 것이며, 이 역시 가족적 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가족의 구성원들은 상속을 통해 통치할 권리를 부여받으며,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 자체로 그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는 세속적인 가족이 아니라 신성한 가족입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의 가족입니다. 그 가족의 가장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자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예수님 외에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은 신성한 가족에 편입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골로새서 1:18; 요한복음 1:12; 요한일서 3:1,2 사도는 더 나아가 우리가 아들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8:16,17). 이 모든 공동 상속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하는 집안에서의 자리가 약속되어 있으며, 이 복음 시대의 바로 그 목적은 하늘의 이 왕실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 년 동안 살며 통치할 자들을 선택하고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4; 시편 2:9; 요한계시록 2:26,27; 고린도전서 6:2,3

복음 시대의 사명이 완수됨에 따라, 하나님의 새 세상 건설을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끝날 무렵,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세상으로 보아서 먼저 "밤중에 도둑 같이" 오십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 오십니다. (요한복음 14:3; 요한계시록 19:7; 21:2). 그의 신부, 즉

교회가 하늘의 영광 속에서 그와 하나가 될 때, 요한계시록 22:17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령과 신부가 이르시되 오라...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세상에서의 첫 시대

새 세상의 첫 천 년은 천년기 또는 메시아 시대라 불릴 수 있다. 이 천 년 동안 복음 시대에 세상에서 모인 교회는 예수와 함께 통치하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복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베풀게 될 것이다. (창세기 12:1-3; 갈라디아서 3:16,27-29; 요한계시록 5:10; 마태복음 19:28).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영광스럽고 승리적인 결말을 이루는 것은 바로 이 메시아 시대에 있을 것이다. 에베소서 1:10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가 도래하기 전에 세상은 "나라가 생긴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를 겪어야 합니다. (다니엘 12:1). 우리가 지금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며, 현재 세상의 고통이 이 시대를 종결짓는 "환난의 때"의 일부임을 믿을 만한 모든 근거가 있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시대에 세상이 개종되도록 의도하셨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현재 문명의 붕괴는 그들에게 당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8:15). 그러나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이 단지 다음 시대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할 자들을 세상에서 모으는 일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을 때, 현재 기독교의 겉보기 실패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 스스로도 재림의 때가 되면 땅에 믿음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셨다. (누가복음 18:8). 바울은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올 것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디모데후서 3:4). 밀과 가라지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겠다고 공언하는 자들 중 상당수가 단지 흉내만 내는 그리스도인일 것이며, 시대의 끝에 이르러 이러한 교파적 집단들이 멸망당할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 말에 가라지를 태우는 일이 바로 시대가 끝나는 큰 환난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시대의 역사가 실패했다는 뜻은 아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모든 이전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성공이었습니다. 그의 참된 "말"은 결국 하늘의 공간에 모아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입니다. (마태복음 13:43). 그러므로 우리가 기독교를 표방하는 것들이 해체되는 모습을 어느 정도 목격하더라도, 모든 일은 신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으며, 우리에게 재앙처럼 보이는 것조차 천년 왕국 통치 기간 동안 진정한 기독교가 세워지기 위한 준비 과정임을 기억하자.

에덴 동산

이제 우리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의 발전을 추적해 보자. 우리는 신성한 배열에서 시간 요소의 중대성, 즉 하나님의 계획이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주목해 왔다. 이제 우리는 존재의 다양한 차원, 즉 삶의 영역과 관련된 신성한 프로그램을 살펴볼 것이다. 에베소서 1:10에서 사도는 "때가 차면" 이루어질 신성한 계획의 완성을

묘사하며, 그때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모두가 그리스도 아래로 모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구원이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늘의 구원이고 다른 하나는 땅의 구원이다. 성경을 연구할 때 이 사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많은 모순이 생겨난다. 구약의 대부분의 약속과 신약의 일부 약속은 지상의 복을 묘사하는 반면, 신약의 대부분의 약속과 교회를 예언적으로 언급하는 구약의 약속들은 하늘의 소망을 제시한다. 이 약속들 사이에 존재하는 조화를 보려면, 우리가 이 약속들에 적절한 시기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아담이 땅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으며, 땅이 인간의 거처로 창조되었음을 강조합니다(이사야 45:18; 시편 115:16). 아담에게 하늘에 올라가라는 말씀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을 어기면 죽을 것이라고만 하셨습니다. 반대로, 어기지 않으면 죽지 않을 것임도 분명했습니다. 아담이 신성한 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땅을 채우고 정복하라는 명령은 죄와 질병, 죽음 없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아담과 그의 자손들은 죽음의 두려움 없이 땅에서 계속 살았을 것이다. 땅을 채우라는 명령이 완전히 이행되었을 때, 인류의 이 기능은 섭리적으로 중단되었을 것이며, 땅은 완전하고 행복한 인간 가족으로 가득 차 영원()의 끝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아담이 신성한 법을 어김으로 인해 예언된 죽음의 형벌이 그에게 내렸기에, 사정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실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는 완전함과 생명 대신 죄와 죽음의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인해 죽음이 왔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고 설명합니다(로마서 5:12,19). 아담의 타락은 그가 죄를 짓자마자 죽음의 선고를 가져왔으며, 그는 바로 이 상태 아래서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따라서 그들 역시 죽음의 길에 있었으니, 강물이 그 근원보다 높이 올라갈 수 없듯이 말입니다.

상응하는 대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는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자. 그에게 말한 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었고, 이는 단순히 그가 에덴의 완전한 동산, 즉 지상의 낙원을 누리며 살 권리를 잃었다는 뜻이었다. 아담의 죄는 이처럼 낙원의 상실을 의미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필연적으로 낙원을 회복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성경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답한다.

구속 사역과 관련해 사용되는 성경 용어 중 하나는 "랜섬"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한 "랜섬"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고 말합니다(디모데전서 2:5,6). 이 구절에서 "랜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단어는 "*안틸루트론(antilutron)*"으로, "상응하는 값"을 의미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구속자로 죽으신 예수라는 인간은 죄를 지은 완전한 인간 아담에 대한 정확한 상응하는 대가였습니다. 예수에 대해 "육신이

하나님의 계획

되셨다"고 말하며, 그 목적은 "죽음을 겪으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14; 히브리서 2:9

예수님의 첫 번째 강림 당시 그분이 수행하신 계획의 핵심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

하나님의 계획에 추가적인 준비 단계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후 하나님의 사역은 타락한 인간을 잃어버린 상태인 낙원으로 회복시키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때 신자들에게 전해진 메시지는 "오라... 생명수를 값없이 취하라"였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2:17). 예수님을 통해 아담에게, 그리고 그를 통해 온 인류에게 내린 죽음의 선고를 무효화할 조치가 마련되었으므로, 다음으로 논리적으로 예상되는 단계는 회복의 일을 시작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오순절에 사도들이 시작한 일은 이것이 아니었다. 예수께서 당대 병자 몇 명을 고치시고 죽은 자 몇 명을 살리신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지 그분의 미래 사역을 예표하기 위함이었다. (요한복음 2:11). 사도 바울은 초기 교회에 주어졌던 성령의 은사들, 즉 제한된 기적들이 행해지도록 한 그 은사들이 "그칠 것" 즉 사라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고린도전서 12:31; 13:1-3,8; 14:18-20,22). 이후 일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으나, 죽은 자는 살아나지 않았으며, 병든 자들 중 기적적으로 치유받았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고, 그 주장들조차 진위 여부가 의심스럽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지상에서의 건강과 영생이 약속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그분과 함께 고난받고 죽음을 맞이할 것을 예상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으로 스승께서는 제자됨의 조건을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그 사정을 밝히셨습니다. 마태복음 16:24

하나님의 계획

성경이 밝히듯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면, 그를 믿는 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일의 세상에서 사실이 될 것이나, 이 복음 시대에는 신성한 구원 계획의 또 다른 단계가 진행 중이며, 이는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그 계획의 단계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그 구성원들이 메시아 시대에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사역에 그분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사도는 이를 "하늘의 부르심"이라 묘사한다. (히브리서 3:1; 빌립보서 3:14). 예수께서는 부자 청년 관원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죽음을 따라가면 "하늘에 보배를 쌓을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이를 암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18-22

준비된 곳

예수님은 또한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며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의 하늘의 소망을 언급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로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4:2,3). 베드로는 교회의 하늘의 소망을 언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이 주어졌으니, 이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후서 1:4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엿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권면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위엿 것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곳”입니다. (골로새서 3:1,2). 이는 교회의 상이 예수님의 상과 동일할 것임을 시사한다. 사도는 또한 이렇게 강조한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살아나게 되리라." 로마서 6:5

후자의 본문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원한 인간 생명을 회복받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도록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신적 계획의 희생적 사역은 갈보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1에서 이를 분명히 밝히며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니라."

골로새서 1:24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를 말합니다. 다른 구절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생명을 바치는 희생의 역할을 맡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에 "함께 심김"을 받은 것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희생적인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정죄를 받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죄를 위한 기꺼이 드리는 제물로 희생적으로 죽으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담의 죄와 아담을 통해 전해진 모든 인류의 유전적 죄를 법적으로 취소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다 함을 받음

그렇다면 어떤 이들은 묻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분과 같은 방식으로 죽을 수 있겠는가? 그들은 타락한 인종의 일원으로서, 모든 인류와 마찬가지로 죽음의 정죄 아래 있지 않은가? 그들은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면전에 나타나셨다고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9:24). 이는 그의 희생의 공로가 그에게 전념한 모든 추종자들을 정죄에서 해방시켜, 그들의 죽음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정죄의 죽음이 아니라 희생의 죽음으로 여겨진다는 뜻이다.

로마서 6:10,11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들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 즉 죄 제물로 죽으신 것과 같습니다. 이는 교회의 희생적 사역이 인류의 구속을 위해 필요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교회의 희생 제물을 마치 완전한 인간의 희생 제물인 양 받아들이시며, 이러한 희생 제물을 통해 교회가 메시아 시대에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일할 준비를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이루는 자들, 곧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자들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의 불완전한

하나님의 계획

행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지상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하늘의 상이 약속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광과 존귀와 불멸로 이끄는 희생의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마태복음 10:39; 로마서 2:7

불멸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게만 주어집니다. 아담은 불멸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이란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시대 말기에 완전함으로 회복될 때에도 인간은 불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시대의 모든 참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침내 불멸의 영광으로 높이 들려질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러하신 것처럼, 높임 받은 하늘의 존재로 만들어질 것이며, 그분 그대로를 보게 될 것이며, 그분과 함께 왕국에 있을 것이며,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요한일서 3:2; 요한계시록 2:26,27; 5:10; 20:4,6

회복된 낙원

이 복음 시대의 일이 완성되고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늘 왕국()의 단계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때부터 인류가 땅 위에서 생명으로 회복되는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메시아 시대의 이 일을 "회복"이라고 말하며,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해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사도행전 3:20,21). 바로 이 거룩한 선지자들의 증언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 인류에게 임할 지상의 생명 복을 묘사한다. 이 지상 약속들의 성취는 복음 시대의 교회, 즉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 마련하신 하늘의 장소로 그리스도께 모인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요한복음 14:1-3

이 복음 시대의 일이 완성되면, 그 다음에는 영적 차원이 아닌 지상에서 인류 전체를 그리스도 아래 모으는 일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아래 하나로 모일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곧 그분 안에 있는 것들"이다. (에베소서 1:10). 복음 시대 초기에 시작된 교회의 모음은 메시아 시대 시작 직전에 완성되어 온 교회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때의 충만함의 경륜"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음이 모두 그리스도께 이루어질 것이라고 알려진다.

지상의 왕들

먼저 지상의 완전함과 생명으로 회복될 자들은 과거의 충성스러운 종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으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 "온 땅의 통치자들"이 될 것입니다. (시편 45:16). 예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그 왕국 시대 동안 백성의 교사로서 존경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11; 누가복음 13:28-30). 이들은 신성한 그리스도의 지상 대표자들이 될 것이며, 그 새 왕국의 법을 집행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신성한 그리스도의 이 지상 대표자들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뒷받침될 것이므로, 그때 시행될 법들—그리스도의 법들—을 피할 기회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때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순종하지 않는) 모든 영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할 것”이라고 알려진다. (사도행전 3:23). 메시아 왕국의 법에 순종하는 자들은 죽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들은

아담이 잃어버린 완전함으로 회복될 것이며, 그 지상의 완전함을 바탕으로 영원히 땅에서 살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베드로가 사용한 "회복"이라는 용어와 주님께서 사용하신 "재생"이라는 용어가 의미하는 바이다. 마태복음 19:28

곧 세상에 임할 회복의 축복에 관한 수백 가지 성경적 약속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의 행복을 가져오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의 개요를 발견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이 바다를 덮는 물처럼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들었다. (이사야 11:9).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순수한 메시지를 전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온 인류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분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바냐 3:9)

또한 그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예레미야 31:33,34). 이는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을 때 잃어버린 완전함으로 인간이 회복되는 방법 중 하나를 묘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사람들의 마음에 기록되는 일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그때에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는 자들과 왕국 규정의 관할권 아래 자신을 두는 자들을 돕기 위해 제공될 것이다.

그 때에 백성들은 "의로움을 배우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이사야 26:9). 그들은 또한 주님을 알게 될 것이며, 주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7:3). 그 시절에는 사탄이 결박되고 모든 악한 영향력이 억제될 것이다. (요한계시록 20:1,2). 생명으로 돌아가는 길이 너무나 분명해져서 "길 가는 자들, 비록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길에서 헤매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5:8,9

이는 현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하는 상황과 얼마나 다른가! 후자들은 찾기 어려운 "좁은 길"을 걷고 있으며, 그 길을 찾아 걷는 자들은 거의 매 걸음마다 시험과 시련을 겪는다. (마태복음 7:13,14).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의 상은 지극히 크다. 그러나 회복의 "큰길"이 열리면, 이 시대의 시련은 끝나고 인류는 지상에서 완전함과 영생으로

신속하고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일의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랜 세월의 준비는 이제 거의 완료되었다. 내일의 하나님 세상에서 왕이 될 "미가엘"은 이미 일어섰으며, 신부를 데려가고 열방 위에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 돌아오시는 그의 재림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없었던 환난의 때"를 초래하고 있다. (다니엘 12:1). 이 환난은 고통스럽지만, 아직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새로운 왕을 받아들이도록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이사야 40:5

예루살렘에서 "그의 통치와 평화가 확장되어" 점차 모든 나라를 포용하게 될 것이며, 그들에게 기쁨과 평화와 영생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사야 9:6,7). 지상의 나라들이 오늘날보다 더욱 온전히 낮아질 때, 그들은 말하리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그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가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치시리니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그들이 이렇게 주님의 길을 배울 때, 그들은 "그들의 칼을

하나님의 계획

보습으로, 그들의 창을 낫으로 만들리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칼을 들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미가 4:1-4; 이사야 2:2-4

그렇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셨으며, 시대를 통해 그 계획은 꾸준히 완성되어 가고 있다. 이제 우리는 "때가 차서"라는 시대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이때 신성한 계획의 대미가 펼쳐져 모든 나라가 평화와 행복, 영생을 누리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신성한 계획의 대미는 그리스도인의 기도, "주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10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이 고통받는 세상에 곧 가져올 의미를 안다면, 이를 다른 이들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정한 메시지이며,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한 "좋은 소식"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어느 단계에서도 실패한 적이 없으며, 오직 그의 목적에 따라 진행되어 영광스러운 완성에 이를 것이라고. 어제의 세상에서

그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세상에서
그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의 세상에서
그의 역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사야 42:4;
55:10,11; 53:10

하나님의 계획이 내일의 세상에서 곧 완성될 것이므로
온 땅이 곧 낙원이 될 것이며, 에덴에서 잃어버리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사신 모든 것이 사람들에게 회복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죽음이 승리에 삼켜질 것이다.
요한계시록 21:1-5; 고린도전서 15:54